

*for 2020*

문 학 후 련

set 4

문제 - 정답

보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삼살개 짚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은 선달 그믐  
 밤이  
 알곳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걸어온 길가에 짙레 한 송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옥 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어깨에 쌓여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고나

철없는 누이 고수머털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  
 서투른 마우재 말\*\*도 들려 주셨지

㉡ 졸음졸음 귀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다시 내게로 헤여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귀성스럽다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부두에 호젓 선 나는 ㉢ 멧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날고 싶어  
 머리에 어슴푸레 그리어진 그곳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알팍한 꿈을 끝없이 꺾인다  
 가도오도 못할 우라지오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

\* 아롱범 : 표범. \*\* 마우재 말 : 러시아 말.

(나)  
 내 유년 시절 ㉣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  
 런 무릎 깎아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  
 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  
 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으  
 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  
 위로 방안 가득 폴폴 수습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 판화1」 -

(다)  
 남산(南山)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가단 말고  
 난 후(亂後) 도끼가 그대로 날렷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불까 하노라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 제비 나니  
 적객(謫客)의 회포는 무슨 일로 그지없어  
 저 제비 나는 걸 보고 한숨 겨워 하나니

적객(謫客)에 벗이 없어 빈 들보에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작고  
 어즈버 내 품은 시름은 너보다도 많노라

㉦ 인간(人間)에 유정(有情)한 벗은 명월(明月)밖에 또 있는가  
 천리(千里)를 머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설월(雪月)의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잤았나니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胡蝶)이 이 향기 알면 애 꿈을까 하노라  
 - 이신의, 「단가(短歌)」 -

-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과거의 기억을 환기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다)는 향토적 정감이 풍부한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③ (나)와 (다)는 자연물에 빗대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④ (가)~(다)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가)~(다)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드러나 있다.
- (가)의 시어와 시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는 자신을 ‘아롱범’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  
 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어머니의 입김’은 화자의 추억과 연결되어 포근한 느낌을 자  
 아내고 있다.  
 ③ 화자의 처지를 ‘등대’와 연결하여 ‘가도오도’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슴푸레 그리어진’은 화자의 추억이 희미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얼음이 두껍다’는 화자가 지닌 신념의 강도를 상징적으로 드  
 러내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은? [3점]

<보 기>

유년기를 다룬 기형도의 시에서 아버지는 늘 부재해 있다. 현  
 실의 울타리로서의 부성의 부재는 불안, 공포의 정서로 연결된  
 다. 어머니는 모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이나 공포로  
 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불안정한 존재로 형상화된  
 다. 부성의 부재, 불안정한 모성은 결국 기형도의 작품에 죽음  
 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 ① ‘무서워요’는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어머니조차 무서워요’에서 불안정한 모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인 바람은 화자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상징한다.
- ④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쓸어내리는 행위를 통해 상실된 부성이  
 회복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시래기 한줌 부스러짐’, ‘사위어가는 호롱불’은 죽음의 이미지  
 와 관련이 있다.

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은 화자의 소망을, ㉡은 화자의 시름을 환기한다.
- ② ㉠은 화자의 과거를, ㉡은 화자의 현재를 상징한다.
- ③ ㉠과 ㉡은 모두 정겨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한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심리를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5. <보기>를 참고하여 (다)의 ‘솔’, ‘명월’, ‘매화’의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은 관습적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 선비들은 이러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었다. (다)는 작가가 인목대비 폐위를 반대하다 함경도로 유배된 상황에서 지어졌는데, 이 시의 자연물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① ‘솔’은 남산에 있다 베어진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를 간 작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
- ② ‘솔’은 ‘우로’가 깊어질 때 다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명월’은 화자를 ‘천리를 머다 아녀 따라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벗으로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
- ④ ‘매화’는 여인 모습으로 꽃을 피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유배 생활 중 작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⑤ ‘매화’에는 ‘향기’가 깊이 배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간직하고 있는 지조를 나타내는 것 같아.

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배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유사한 구조의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 : 대립적 시어를 병치하여 상황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 :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투병 중이던 최 교수의 부고를 듣고, 서울행 비행기를 탈지 말지 망설인다. ‘나’는 과거 최 교수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는 응접실로 나오지도 못하고 ㉠ 안방에 딸린 침구 위에서 나를 맞았다. 전번에 찾아오려고 했을 때, 병원에 가고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두 주일이 지나 있었다.

“그렇겠지. 막살아왔다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왔다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무슨 짓이든 하겠지. 그러나…… 난 그렇지가 못하잖아. 그렇게 막살지도 못했잖아.”

㉡ 얼음 조각을 하듯 그렇게 사셨을 것이다. 깨뜨리면 잘 못 부수면 회복이 안 되는 것으로 사신 시간들일 것이다. 선생님의 시간.

“폭력적인 생각이 자꾸 들곤 해. 뛰어내릴까. 그래서라도 죽는 게 낫지 않나. 딱 죽는 약이 있으면 먹을까도 싶고. 이런 폭력적인 생각을 또 고쳐. 내가 이래선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왜 그런 약한 생각을 하세요. 나는 겨우 그렇게 중얼거리려다가 목이 아프게 누르며 그 말을 참았다. 아무것도 선생님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죽음이…… 화려하게까지 느껴지기도 해. 그게 두렵지가 않아. 이상하지. 전에 할아버지 무덤에 가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나. 그때, 그 용단같이 푸른 잔디를 보며 앉았노라면 그렇게 좋고 평화스러울 수가 없었어. 내가 이제 여길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살아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지. 물론 살아가며, 순간순간의 기쁨이야 있겠지. 그러나……”

㉢ 이미 노오랗게 물들어 있는 선생님의 눈을 나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병이 저렇게 만든 것일까.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 우리는 이다지도 무력한가.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겠다고. 무엇을 남기겠다고 매일을 고단하게 살았던 말인가. 메마른 입술을 적시며 선생님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길이 커튼이 열려진 창에 가 멎었다. 텅 빈 하늘이 거기 가득했다.

“끊임없이 싸워. 정상적인 자아와 병든 자아가 이십사 시간을 싸워. 이게 나야. 내가, 두 개의 내가 살아 있어. 내가 나를, 정상적인 자아가 병든 자아를 두 시간만 재워 놓자. 그러면서 잠이 들어. 여덟 시에 깨우자. 그러면서 살아. 병든 자아를 달래서 약을 먹고, 병든 자아에게 사정해 가며 물도 몇 모금 먹고……”

그때, 왜 그 생각이 떠올랐을까. 그것은 내가 본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의 선생님이었다. 그때 선생님은 대학의 보직을 맡고 있었다. 마침 약속이 있어서 학교 본관의 처장실로 찾아갔을 때 였다. 그때 다른 단과 대학의 학장을 했던 원로 교수 하나가, 최명하 너 이놈 하고 고향을 치며 처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었다. 그는 아마 선생님보다 스무 해는 나이가 위였을 게다. 그를 향해서 그때 선생님이 소리쳤다. 학자라는 게 나잇값도 못하고! 당신하고 할 이야기 없으니 당장 나가! 놀라서 집무실 한구석에 나는 서 있었고, 선생님은 그 노교수의 등을 밀어 밖으로 내몰았다. ㉣ 문을 닫아걸며 선생님이 내뱉듯 말했다. 무슨 부정 입학생 명단을 수첩에 적어 가지고 합격을 시키자니! 그걸 내가 못 한다고 잘랐더니 저 주책이야! 그때는 마침 입시철이었다. 것처럼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갑자기 왜 떠오르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때의 그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의 자아를 생각했던 것일까.

㉤ 메마른 발을, 여윈 발을 당겨 앉은 자세를 바꾸며 그때 선생님이 중얼거렸다.

“황 교수, 그 사람이 뭔데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아.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다 이십 년을 더 살다니.”

황 교수. 그분은 선생님과 가까웠던 국문과 교수였고, 원로 소설가였다.

“오늘 비행기는 전연 예약이 안 되네요. 그냥 비행장으로 나가 보실래요. 좌석이 있으면 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내의 그런 말을 들으며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 가지 않겠어. 병든 자아와 정상적인 자아가 아냐. 수없이 많은 내가 내 속에 있어.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자아와 싸웠던가. 때로는 두려웠던 나. 때로는 슬펐던 나. 때로는 그의 병들을 보며 살아있는 자신이 기뻐던 나도 있었어. 그의 무너져 가는 몸을 보며, 건강에 조심해야지 하고 쥐가 천장을 감아대듯 속삭인 나도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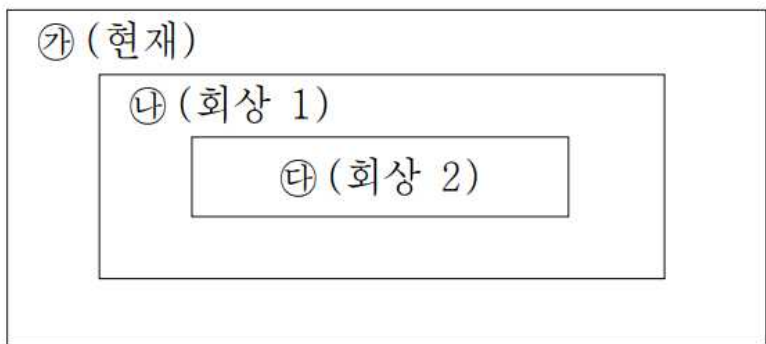
그는 새로 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다. 비뿔어진 매듭을 거울 속으로 바라보며 다시 맬까 어쩔까를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양복을 걸치며, 넥타이를 고치기도 다시 매지도 않은 또 하나의 자신에게 말했다. 두 시의 약속을 미룰걸 그랬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기 위해 구두를 신으며 그는 오늘 저녁에는 술을 마시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많이 마시지는 마.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빗발을 뿌려 그의 구두를 젖게 했다. 그는 우산을 바람 쪽으로 기울이며 걸음을 빨리했다. 비는 모래알 같이 뿌려댔다. 골목에는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사막 같았다. 비를 맞고 있는 집과 나무와 아스팔트 포장인 골목을 바라보았다. 사막. 순간 그는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꼈다. 어떤 모습의 그도.

- 한수산, 「타인의 얼굴」-

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내면 의식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나'의 공간 이동에 따라 서사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 ③ 동일한 사건이 선생님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 ④ '나'가 선생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 ⑤ '나'의 체험과 선생님의 체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차되고 있다.

8. 위 글의 시간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선생님의 부고를 들은 후의 시간이다.
- ② ㉢는 선생님에게 병문안을 갔을 때이다.
- ③ ㉣는 선생님이 대학에서 보직을 맡고 있을 때이다.
- ④ ㉣의 선생님의 모습이 ㉢를 떠올리게 한다.
- ⑤ 황 교수에 대한 선생님의 말로 인해 ㉣에서 ㉡로 돌아온다.

9.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타인에 대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낯선 체험을 할 수 있다. 타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험은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의 제목인 '타인의 얼굴'은 이런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① 거울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은 '또 다른 나'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② 선생님은 '나'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게 하는 '타인의 얼굴'로 볼 수 있다.
- ③ '사막'은 삶의 본질에 대한 '나'의 인식과 내면을 보여 주는 상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 ④ '나'가 '그'와 대화를 하는 행위는 자아와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고 느낀 것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선생님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 : 지난날 선생님의 신중하고 철저했던 삶을 나타낸다.
- ③ ㉢ : '검고 컸던 선생님의 눈'과 대비되어 선생님의 심신의 변화를 나타낸다.
- ④ ㉣ : 격렬하고 단호했던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 : 삶에 대한 선생님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겨울, 중년기의 옹고집이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얼어붙은 땅바닥을 기어 다니며 오열하고 있다.

옹고집 슬프다. 진짜는 울면서 쫓겨났는데 기쁘다, 가짜는 웃으면서 춤을 추네!  
(벌떡 일어나 뺨을 돌면서 묻고 묻는다.)  
내가 옳으냐? 네가 그르냐?  
내가 그르냐? 네가 옳으냐?  
내가 좋으냐? 네가 나쁘냐?  
내가 나쁘냐? 네가 좋으냐?  
내가 고우냐? 네가 미우냐?  
내가 미우냐? 네가 고우냐?  
내가 진짜냐? 네가 가짜냐?  
내가 가짜냐? 네가 진짜냐?  
내가 사람이냐? 네가 허수아비냐?  
내가 허수아비냐? 네가 사람이냐?  
(울고 웃더니 자기 자신의 몸을 쥐어뜯는다.)  
괴롭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알 수 없구나!

(십장생도, 차츰차츰 밝아지며 열 명의 신선들 모습이 그림자로 비춰진다.)

신선들 어찌하여 너는 괴로워하느냐?

옹고집 나는 나를 잃어버렸소.

신선들 네가 너를 잃어버린 지 몇 해나 되느냐?

옹고집 몇 해나 되는지도 모르겠소. 십 년이 지났는지 이십 년이 지났는지…….

신선들 네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 방향을 바꾸어 뺨을 돈다. 사이. 문득 걸음을 멈춘다.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달아나는 몸짓을 한다.)

신선들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집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쫓아내고 있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원형의 뱀을 다시 돈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신선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텅 빈 들판에 허수아비가 서 있소. 그 모양이 나를 꼭 닮았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원형의 뱀을 돌며 걷는다. 사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신선들**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때리고 있소.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고 있소. 내가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고 있소. 사람들의 목이 타고, 가슴이 타고, 뺨이 타고 있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뱀을 돌며 걷는다. 사이. 문득 멈춘다.)

**신선들** 거기엔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나 때문에 부모님이 서럽게 울고 있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뱀을 돈다. 사이. 문득 멈춘다.)

**신선들**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내 어린 시절, 남의 닭을 훔쳐 먹고 있소. 신선들 오던 길을 더 되돌아가 보아라.

**옹고집** (뱀을 돈다. 사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태아처럼 몸을 둥글게 웅크린다.)

**신선들** 무엇이 있느냐?

**옹고집**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웅크리고 있소.

**신선들** 네가 거기까지 갔구나. 길은 그곳에서 시작이니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던 길을 다시 가라.

**옹고집** (몸을 웅크린 채 회한의 감정이 복받쳐 흐느끼며) 난 가지 않겠소! 지금 왔던 길을 다시 가면 난 가짜한테 쫓겨날 뿐이오! 난 다른 길을 가고 싶소! 나를 되찾는 길, 새 길로 나를 가게 해 주시오!

**신선들** 그 새 길이 어떤 길인지 네가 아느냐?

**옹고집** 이제는 알 것 같소. 나를 나눠 주는 길이 나를 되찾는 길이오.

**신선들** 네가 그것을 깨달으니 우리도 참 기쁘구나! 고집아, 옹고집아, 고개를 들어라!

**옹고집** (고개를 들어 십장생도를 바라본다.) 아…… 누구시오?

**신선들**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여기에 있다! 하늘에는 해가 있고, 구름이 있고, 땅에는 산이 있고, 돌이 있고, 물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불로초가 있고, 거북이 있고, 학이 있고, 사슴이 있으니, 모자란 것도 없고, 지나친 것도 없고, 보탬 것도 없고, 빼낼 것도 없다. 활짝 눈을 뜨고 보아라! 동쪽의 해가 밝게 보이느냐? 그리하면 서쪽의 저문 달도 맑게 보이리라. 어둠 속에 없던 것이 밝음 속에 있고, 흐림 속에 없던 것이 맑음 속엔 있다. 있는 것을 갖고자 애쓰지 말라! 이미 네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무엇을 더 갖겠느냐? 잘못된 옛 길을 버리고 바른 새 길로 가라! 오랫동안 헤매다가 너를 찾아 돌아가는 길, 마침내 너는 즐거우리라!

- 이강백, 『비용사옹』

11. <보기>를 고려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고전소설 『옹고집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작가는 옹고집을 통해 소유욕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유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려고 했다.

- ① 괴로워하는 ‘옹고집’을 통해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갈등하는 상황을 드러내고자 하였군.
- ② ‘옹고집’이 목격한 ‘허수아비’는 소유에 집착하다 정작 ‘나’를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③ ‘옹고집’이 도달한 ‘어머니 뱃속’은 소유욕에 사로잡힌 삶을 바로잡아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군.
- ④ ‘나를 나눠 주는 길이 나를 되찾는 길’이라는 대사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소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군.
- ⑤ 그 자체로 충만한 세계를 보여 주는 ‘십장생도’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현대인에게 ‘새 길’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군.

12. 위 글에서 ㉠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옹고집’이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한다.
- ② ‘옹고집’이 지난날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 ③ ‘옹고집’이 시대적 모순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옹고집’과 ‘신선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게 한다.
- ⑤ ‘옹고집’의 경박한 성격을 점진적으로 부각시킨다.

13. 위 글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연극반 학생들이 토의하고 있다.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면에서 겨울은 ‘옹고집’의 현재 처지와 어울리는 설정이야. 계절적 배경의 상징성이 잘 살아나도록 해야 해.
- ② ‘옹고집’의 첫 번째 대사는 운율감이 느껴지도록 노래로 부르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 ③ ‘옹고집’이 중간 중간 보고 있는 환영을 무대에서 어떻게 연출할지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 ④ ‘신선들’은 그림자로 비춰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목소리에서 신선이라는 느낌이 나도록 할 필요가 있어.
- ⑤ ‘옹고집’이 ‘십장생도’를 바라볼 때에는 ‘옹고집’보다는 ‘신선들’의 표정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조명을 비출 필요가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마을 동쪽 집 남자 효렴에게 마음이 있던 향량은 부모님의 뜻대로 서쪽 집으로 시집을 가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박대로 쫓겨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원치 않는 개가를 강요당한 향량은 물에 빠져 죽는다. 천상계의 존재가 된 향량은 효렴이 자신에게 올린 제문에 감동받아 그를 찾아간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닭이 새벽을 알리고 샛별이 반짝거렸다. 향량은 곧 일어나며 “말하자면 기니, 훗날을 기약하지요.” 하다가 갑자기 다시 슬퍼지면서 물었다.

“스스로 중매를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의가 아

납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오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그대를 믿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언짢아하지 않으신다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마음이 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별하려다가 다시 뒤돌아서 효렴과 인연을 맺고자 하는 소원을 거듭거듭 전했다.

효렴 또한 더욱 잇을 수가 없어 문에 기대어 우두커니 서서 바라다보다가 계단을 내려서서 몇 발자국 떴는데, 순식간에 종적이 없어졌다. 효렴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잠자리에 누웠어도 몸만 뒤척이며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를 꺼내 큰 글씨로 절구 하나를 지었다.

- ┌ 선녀도, 귀신도 아니고 사람이라 하네
- ┌ 청초가 날아오더니 소식이 새롭구나
- ⊙ 바다는 넓고 산은 높는데 훗날을 기약하니
- ┌ 꽃다운 자태는 다시 오지 않아 청춘을 원망하네

시가 완성되자 또 사랑스레 어루만지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 자리에 들어서는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향량이 남긴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글은 위부인을 본받은 것이었고, 시는 두추량의 <금루사>를 본받은 것이었다. 시는 다음과 같았다.

- ┌ 일찍이 인간 세상을 좇아 잠시 사람이 되어
- ┌ 전에 좇지 않은 것 후회스러워 새 약속을 맺네
- ⊙ 그대 마음 해와 달처럼 변함없음을 아니
- ┌ 추운 계곡에 앉았어도 봄별 따뜻하게 피어나네

또 글은 다음과 같았다.

굳은 맹세 전날 밤에 맺었고 아름다운 인연 내세를 기약했네. 옛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며, 새 사람이 옛 사람 아니라고 믿지 마라.

효렴은 기쁨이 극에 달해 도로 슬퍼지며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이날 향량은 후토 부인 앞에 나아가 그 이유를 다 아뢰고, 천제께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결혼하게 해 달라고 청한 것을 아뢰었다.

“몸의 형체는 이미 소상이 지났으나 성씨는 다를 바가 없고, 이승과 저승 사이의 명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속은 귀신이지만 겉으로는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 이대로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동네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일찍이 어느 동네 아무개의 처가 되었다가 지금은 또 어느 동네 아무개의 부인이 되었다.’고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 년이 지나도록 부끄러운 행위를 했다는 이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 비록 집에서 말을 한다 해도 어찌 능히 스스로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면서 행동하면 이름을 날릴 수 없고 의심하면서 일을 하면 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비록 죽었으나 죽지 않아서, 죽은 지 일 년이 지나도 얼굴과 모습은 여전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하물며 버림받은 아내가 다시 재혼한다 해도 떳떳한 정에 비추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살아난 일만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죽었던 일도 진실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소문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사람의 말 많음 또한 두렵습니다. 나이와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서쪽에 살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부인이 버젓이 동쪽에 사는 남자 집에 있다면 옛 남편과 새신랑이 같은 동네에 사는 꼴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비웃으며 손가락질할 것은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진실로 이렇게 된다면, 연못가에 신발을 벗어 놓고 자살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열녀라는 정려와 포상은 모두 사람을 속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아비와 시어미가 죄를 묻고, 종들이 몰래 웃고, 친척들이 부끄러워하고, 이웃들이 내놓고 모멸하는 것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지에 받아들여질 곳이 없으니, 이미 스스로 자초한 것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 영혼과 형체를 돌이켜 인간 세상에 새롭게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실로 천지의 후덕하심을 입어 뼈와 살이 아직 썩지 않았고, 정신이 생전에 비해 못하지 않으니, 자식 처럼 여겨 주시는 후토 부인의 은혜와 살 길 열어 주기를 좋아하시는 선성(仙聖)의 덕이 지극하고 지극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양지와 양능이 있는데, 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어서 일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면 행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바라기는 부인께서 자비를 크게 더하셔서神通한 능력을 널리 베푸사 방법을 빨리 마련하셔서 은혜를 머금은 몸으로 하여금 못 다한 회포가 없게 해 주신다면 그 은혜가 막 대하다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진댄 비록 몸은 선가에 돌아가고 뼈를 황천에 묻는다 할지라도 끝내 이 몸을 혐의로운 곳에 두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저의 뜻입니다.”

- 김소행, 「삼한습유」 -

14. 위 글의 ‘향량’과 ‘효렴’에 대해 잘못 파악한 것은?

- ① 향량은 스스로 중매한 이유를 효렴에게 해명하고 있다.
- ② 향량은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 ③ 향량은 열녀로서의 죽음이 의심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 ④ 효렴은 향량에 대한 생각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 ⑤ 효렴은 향량이 남긴 시와 글을 보고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1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바다는 넓고 산은 높는데’를 통해 효렴은 향량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의 ‘꽃다운 자태는 다시 오지 않아’를 통해 효렴은 향량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의 ‘전에 좇지 않은 것 후회스러워’를 통해 향량은 효렴과 인연을 맺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 향량은 효렴의 마음을 ‘해와 달’과 같은 자연물에 빗대어 그에 대한 굳은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향량은 ‘추운 계곡’과 ‘봄별 따뜻하게’를 대비하여 효렴을 통해 느끼는 애뜻한 정을 표현하고 있다.

16. '향랑'이 '후토 부인'에게 말하는 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 끼리 묶인 것은?

<보 기>

- ㄱ. 유사한 다른 사례를 들어 설득하고 있다.
- ㄴ. 예상되는 부정적 상황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ㄷ. 상대의 덕을 드러내면서 인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 ㄹ. 권위적 어조와 의지적 어조를 교차하여 구사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김소행은 문장에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지만 서얼의 후손으로 그것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향랑은 실존했던 인물로 조선 후기 사대부들에게 열녀로 여겨진 인물이다. 김소행은 향랑의 행적을 바탕으로 하면서 거기에 환상을 더하여 「삼한습유」를 지었다.
- 고전 소설에서 환상은 불우한 삶을 산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성취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경가 많다. 이러한 환상에는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으며, 또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기도 하다.

- ① 죽은 향랑이 살아 있는 효렴에게 나타나고, 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을 통해 환상으로서의 작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어.
- ② 향랑이 스스로 중매를 하고 또 후토 부인과 천제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은, 환상에서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성취하려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아.
- ③ 향랑이 직접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작가는 비현실적 환상이 지니는 교훈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
- ④ 작가는 환상을 통해 사대부들에게 열녀로 여겨진 향랑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인물로 변모시킴으로써 당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향랑은 살아서는 효렴과의 인연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우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는 현실에서 제 뜻을 펼치지 못한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1~6]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 판화1」, 이신의 「단가(短歌)」

- |      |      |      |
|------|------|------|
| 1. ① | 2. ⑤ | 3. ④ |
| 4. ① | 5. ② | 6. ③ |

[7~10] - 한수산, 「타인의 얼굴」 -

- |      |      |      |      |
|------|------|------|------|
| 1. ① | 2. ⑤ | 3. ⑤ | 4. ⑤ |
|------|------|------|------|

[11~13] - 이강백, 「비용사옹」

- |      |      |      |
|------|------|------|
| 1. ① | 2. ② | 3. ⑤ |
|------|------|------|

[14~17] - 김소형, 「삼한습유」 -

- |      |      |      |      |
|------|------|------|------|
| 1. ② | 2. ① | 3. ③ | 4. ③ |
|------|------|------|------|